



직종별 안전보건 택시 운전자

택시 운전자(택시기사)의 문제점

야간 및 장시간 근무 등과 같이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(심혈관계 질환, 근골격계질환 등)을 미치는 동시에 교통사고의 직·간접 원인이 된다. 그리고 일부 택시 운전자는 운전 중 폭행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.



주요 유해 · 위험요인

- 주당 60시간 이상, 1일 12시간 이상 근무 등 장기간 근무
- 좋지 않은 기상상황(눈길, 빙길 운전 등)
- 심야 시간 근무
- 승객의 폭언 및 폭행



Safety Tip

-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출근시간대(8~10시)에 교통사고가 많이 남
- 도로노면이 미끄러워 발생한 교통사고는 겨울철(12월~2월)이 여름철(6~9월)보다 4배 이상 많음

주요 예방대책

- 안전보건에 사항에 관하여 택시 운전자, 회사, 조합 등이 공동 대처한다.
-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, 야간근무를 마친 후 최소 2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다.
- 규칙적인 식사와 근무 중 적절한 휴식(휴식 시 수시로 스트레칭 실시)을 취한다.
- 운행 전·중에 약(감기약 등) 복용, 음주 등을 하지 않는다.
- 눈·비가 올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감속운행을 하고,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.



- 교대 근무 전,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한지, 보안 장비들이 동작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.

- ▶ **보안 장비** : 차량 잠금 장치, 보안 카메라, 블랙박스, 비상등, 무전기와 위치 추적기(GPS) 등이 포함
- ▶ 보안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, 회사에 문의하여 고장 여부를 확인한다.

- 초보 운전원 이거나, 새로운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는, 동료 기사에게 위험 시간 및 지역을 확인하여 그 시간 및 지역에서는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.
- 조명이 밝고 안전한 곳에서 승객을 태우도록 한다.
- 폭력행위 및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방법, 비상경보 및 신속한 연락방법, 폭력 및 강도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 등 위험한 승객에 대응하는 법을 교육 받는다.

✓ 위험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

-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(가장자리나 공터 등)로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.

- ▶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서에 사고발생 장소, 사상자수, 부상 정도 등을 알리고 지시를 받는다.
- ▶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킨다.

- 고속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,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전복위험이 높아진다. 그래서 펑크가 나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핸들을 짊 쥐고 직진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 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.
- 승객이 욕을 하거나 난동을 부린다면, 침착성을 유지하고 승객과 다투지 않는다.
-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, 택시 회사 등에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택시 회사에 보고한다. 안전 문제를 보고해야만 택시 기사, 승객, 다른 기사들의 안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.

